

MS그룹 컨소시엄, GM군산공장 인수

투자촉진형 성공 모델 지역-기업 '윈-윈'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 1년여만에 새로운 주인을 맞아 전기자동차 전문 양산체제로 변화를 꾀하게 됐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전적 인수한 컨소시엄 중심기업 MS그룹(주)명신 포함은 계열순위 300위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으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컨소시엄 중심기업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은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에 차체를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도 새로운 전기차 부품을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등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신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과 항만, 철도의 '새만금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가 갖춰질 전라북도도를 윈-윈 파트너로 삼았다는 전언이다.

GM 군산공장 인수에 따라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전북도, 군산시,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투자촉진형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은 일단 공장 정비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연간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 15만대까지 전기자동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공항-항만-철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갖출 도와 의기투합도, 지역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지원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은 GM군산공장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뒤 앞으로 약 9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여(직접 고용 900명, 간접고용 2,000명 이상 효과 예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산업부, 군산시 등 관계기관



한국GM 군산공장 매각 관련 기자회견이 지난 2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기자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하고 있다.

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기업이 전북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관련 부품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친환경 고기능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주)명신을 포함한 MS그룹 등 컨소시엄이 전북의 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전북 자동차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 대통령, 10일 출국 워싱턴 도착... 11일 정상회담 후 귀국靑 "톱 다운 방식 외교 방향성 확인, 실현 구체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11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지난 29일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4월 10일~11일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각으로 10일에 출국해서, 워싱턴에 10일에 도착하며 정상회담은 11일에 진행되는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윈 포인트로 논의하는 공식실무 방문 형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논의를 위해 1박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은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월 28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것을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락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해 북한의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뉴시스

따라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당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스냅백(snapback) 조항을 추가하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한미 정상 사이에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미 당국 간 구체적인 정상회담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 주 워싱턴을 찾아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상세 의제는 김현종 2차장이 다음주 백악관에서 직접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미와 관련해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톱 다운' 방식의 외교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30일 아드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여 만이다. 취임 후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뉴시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평화당 유성엽 의원, 전북대 약학대학 신설 따라

전북대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약학대학 신설이 확정됐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전북대와 제주대에 각각 정원 30명의 약학대학 신설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들 대학은 내년도인 2020학년부터 약대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상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재임시 전북대 약대 신설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과 논리적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심혈을 기울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사장된 '계약학과' 제도의 개선사항 중 일환으로 연구중심 약사 양성을 위한 약대 신설



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부 평가과정에서도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정성 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정성연구본부' 등 국책연구기관과 연계한 전북대의 약사 양성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방사선, 생명공학 원천 기술을 개발해온 것에 이어, 이번에 응용과학인 약학대학 과정까지 개설되게 되면, 정읍은 명실상부한 서남권 연구중심 도시의 메카로 거듭나게 된다"고 평가하고, "국책 연구기관과 약학대학 및 대학원이 소재하게 되면 우수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이는 기업유치에도 아주 중요한 인프라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기업유치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 산업화 연계에 한껏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올러 '정읍 산·학·연 협력지원센터'의 시설 확충 및 추가 학과 개설을 전북대에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 약학대학 유치 확정 환영"

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 갑, 민주평화당)은 29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에 전북대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며 "전북대학교의 약대 유치를 환영하며 약대유치를 통해 전북 의료 인프라 강화 등 전북발전이 기대되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전북대학교는 약대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증진 및 전북의 농생명·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전북지역 약학대학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북대학교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질의 및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약대신설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



는 등 전북대학교 약대 신설의 막후역할을 푹푹히 해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약대가 운영 중이며 총 정원은 1,693명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거점 국립대학 가운데 약학대학이 없는 곳은 전북대와 제주대 단 2곳뿐이었다"며 "전북의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인력 양성과 인프라 강화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정부에 전북지역 약학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한 끝에 오는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대학에 최종적으로 전북대가 선정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진안 마구동·장수 노곡 생활여건 개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 기여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일대의 마구동 지구와 장수군 장수읍 노곡지구의 취약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진안 마구동 지구는 군상리 연구동과 중앙1동이 대상지역으로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29억원 등 총 8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등 주택정비, 마을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에 진안 마구동(馬籠洞)지구와 장수 노곡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지역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일자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수 노곡지구에는 국비 24억원 등 총 85억원을 들여 세천 정비, 경사지 보강, 불량 담장 정비 등의 안전 확보가 이뤄진다. 또한 LPG가스 공급 시설망 구축 등 생활·위생 인프라 구축, 폐가 정비·지붕개량 등 주택정비, 집수리, 일자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장수군

장수에서 새로 시작되는 축구역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청정지역

장수군으로!